

존경하는 (사)토질및기초기술사 회원 여러분!



(사)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회장

류 기 정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기술사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건설산업과 기술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병술년은 장마와 폭우로 인한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고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와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허탈감, 사회적 불안속의 건설경기 침체, 발주 물량 감소 등 우리 건설인들에겐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태극전사들의 활약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 등 희망적이고 기분 좋은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회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저희 기술사회는 무사히 일년간의 살림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기술사의 업역 문제점에 강력 대응 하였고 가을기술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크고 작은 기술용역을 수행하였고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와 같은 타 기술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님들께서는 상호 대소사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술사회로서의 위상적립과 기술발전, 회원간의 결속력 다짐을 실천하는 견실한 사단법인인 공익단체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토질및기초기술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 회원님들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회원님들 모두가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하고 번창하는 기술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기술사회 회원님들 모두에게 축복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오며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회원님들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